



'부처님의 공양전'을 둘러보는 정산 스님과 스님들



참가아동이 즐겁게 사찰김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사찰음식 대축제에는 OX퀴즈를 비롯한 각종 체험코너가 마련돼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우수한 성적을 낸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절달됐다. 사찰음식 OX퀴즈에 참여한 불자들의 모습



다양한 사찰음식을 둘러보는 불자들의 모습



부처님의 '일급집 탁발 음식' (칠가식)을 재현한 전시품

“불교 전통 음식, 수행 정신까지 맛보세요”

조계종 첫 사찰음식대축제 6월 6~9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

“사찰에서 만드는 김치에는 마늘이 들어갈까요? 안들어 갈까요?”
“안들어 갑니다!”
“네! 맞습니다!”

사찰 한 칸에 마련된 OX퀴즈 부스에서 흰머리 지긋한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함께 앉아 퀴즈를 풀며 밝게 웃었다. 조계종 사상 최초로 나흘 동안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사찰음식대축제의 한 모습이다.

이날 봉은사에서 열린 대축제에서는 사찰음식의 향기가 사방에 퍼져 도시인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사찰음식 대중화와 그에 담긴 불교정신을 알리기 위해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진행한 사찰음식대축제는 6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봉은사 곳곳에서 전시와 체험, 교육과 경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대축제에는 조계종 사찰음식 특화사찰인 산청 금수암과 서울 진관사, 수원 봉녕사, 팽택 수도사, 대전 영선사, 의성 고운사, 울진 불영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불교정신을 담아 적게 먹자는 소식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사찰음식의 정신을 대중화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笑食), 과식을 삼가고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양만 먹는 것(小食), 가능하면 육식을 삼가고 채소를 먹는 것(蔬食)을 뜻하는 ‘3소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정산 스님은 소식캠페인 선포식을 겸한 개막식에서 사찰음식의 의미를 강조했

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사찰음식대축제에서 소식 캠페인을 본격 전개할 것을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소식 캠페인에 서약하는 자리와 캠페인 동참자들에게 소식을 위한 작은 밥그릇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체감온도 35도를 훌쩍 넘는 날씨에도 축제의 각 부스는 인산인해였다.

사찰음식대축제에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각종 체험코너를 통해 사찰음식을 맛보고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는 정산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사찰음식연구소 소장 적묵 스님, 선재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한식재단 양일선 이사장 등 불교계 사찰음식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체험코너에서 우수성적을 받은 스탬프를 5개 이상 모으면 소식을 위한 밥그릇 등을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등 참여를 이끌었다.

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코너는 ‘사찰음식 OX퀴즈’와 ‘사찰 김밥 만들기’였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과 다르게 사찰김밥에는 햄도 없고 맛살도 없지만, 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걸 먹는 것도 재밌어요.” 김재원(9) 군.

“성당에 다니는데 봉은사가 가까워 가끔 옵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사찰음식 체험이 아이들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사찰김밥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숙희(35) 씨.

그동안의 사찰음식대회와 다르게 가족 단위로 찾는 이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퀴즈와 투호 등에는 남녀노소를 떠나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흘렀다.

사찰음식 OX퀴즈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송원숙(55) 씨는 “사찰음식에 오신채를 쓰지 않는 등 평소 알던 내용이지만 퀴즈로 푸니 재미도 있고 유익했다”며 활짝 웃었다.

오전 2시 개막식에 앞서 열린 체험부스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도 즐겁게 체험 소감을 밝혔다.

인도에서 온 락키쉬 아리아 씨는 물지게 옮기기를 비롯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시장 한쪽에는 전통 사찰공간의 조망단, 아궁이, 가마솥 등을 재현한 공간이 마련됐으며 ‘힐링 밥상’ 코너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찰음식, 고3 수험생을 위한 사찰음식, 고혈압에 좋은 사찰음식 등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유형의 사찰음식이 전시됐다.

유명 사찰의 특색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사찰음식 칠보전’, 계절별 대표 사찰음식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사찰음식 계절밥상’도 선보였다. 오후 4시 개막식과 테이핑 커팅식이 진행된 이후 행사장을 찾는 이들은 늘어났다. 약자지결할 속에 무더운 여름날씨는 이내 가셨다. 이날 대회는 사찰음식의 맛과 불교정신, 그리고 불자들의 유쾌함을 함께한 축제 한마당이였다. 한편, 8일과 9일에는 1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사찰음식경연대회와 선재 스님 등 사찰음식의 최고 전문가 스님들이 강사로 나서서 사찰음식 명인강좌, 외국인 발우공양 체험이 개최됐다.

사찰음식 경연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렸다. 개인전은 손으로 집어 한입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한입요리’가, 단체전은 주 요리와 곁들이 음식으로 구성된 ‘한상차림’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상차림은 경전이나 고분헌에 나오는 사찰음식의 현대적 재현,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거나 전수돼 온 음식, 전국 사찰에서 널리 즐기는 음식 등으로 70분간 진행됐다. 교육행사인 사찰음식 명인 강좌는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과 대안 스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한데 모았다.

특히 부처님이 공양받고 옆면에 드신 춘다의 돼지감자커티 등이 전시된 ‘부처님의 공양’전은 스님들

을 비롯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시장 한쪽에는 전통 사찰공간의 조망단, 아궁이, 가마솥 등을 재현한 공간이 마련됐으며 ‘힐링 밥상’ 코너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찰음식, 고3 수험생을 위한 사찰음식, 고혈압에 좋은 사찰음식 등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유형의 사찰음식이 전시됐다.

유명 사찰의 특색 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사찰음식 칠보전’, 계절별 대표 사찰음식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사찰음식 계절밥상’도 선보였다.

오후 4시 개막식과 테이핑 커팅식이 진행된 이후 행사장을 찾는 이들은 늘어났다.

약자지결할 속에 무더운 여름날씨는 이내 가셨다. 이날 대회는 사찰음식의 맛과 불교정신, 그리고 불자들의 유쾌함을 함께한 축제 한마당이였다.

한편, 8일과 9일에는 1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사찰음식경연대회와 선재 스님 등 사찰음식의 최고 전문가 스님들이 강사로 나서서 사찰음식 명인강좌, 외국인 발우공양 체험이 개최됐다.

사찰음식 경연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렸다. 개인전은 손으로 집어 한입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한입요리’가, 단체전은 주 요리와 곁들이 음식으로 구성된 ‘한상차림’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상차림은 경전이나 고분헌에 나오는 사찰음식의 현대적 재현,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거나 전수돼 온 음식, 전국 사찰에서 널리 즐기는 음식 등으로 70분간 진행됐다.

교육행사인 사찰음식 명인 강좌는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과 대안 스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한데 모았다.

노덕현 기자 · 허주비 수습기자

■조계종 ‘소식’ 캠페인은?



불교문화사업단 범국민 캠페인 ‘소식’ 캠페인은 사찰음식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세 가지의 ‘소식’을 하자는 것으로,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는 소식(笑食), 과식을 삼가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자는 소식(小食), 육식을 위한 축산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채식하자는 소식(蔬食)이다.

6월 6일 선포된 소식 캠페인은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2013년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홍보사업이 진행된다.

2014년에는 대국민 서약운동 및 일반사회 홍보활동이 진행되며 2015년에는 범종교계 운동으로 전환해 가톨릭 등과 함께 캠페인 전개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홍보대사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요대 선수가 위촉됐다.

박용규 문화사업단 사무차장은 “소식을 실천하면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삶과 음식을 적게 먹고 아껴 이웃과 굶주린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나누는 삶,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땅과 물, 공기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불기2557년 대한불교 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관문사에서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훈인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를 올해도 예년과 같이 봉행합니다. 대조사님께서 재세시에 “일심으로 관음주송 백만독을 하면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정청해지고 업장이 소멸되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구경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조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생전 사후에 큰 복전이 될 수 있는 큰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개인의 소구소원의 원만한 성취와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참여방법 *

1. 기도기간 : 6월 18일 화요일 ~ 9월 28일 토요일 (103일간)
2. 동 참 금 : 133,000원 (매일 불공축원 및 기도복 포함)
3. 동참문의 : 관문사 종무소 02)3460-5300

* 기도시간안내 *

1. 불공축원 : 오후 11시 ~ 11시 30분(30분간)
2. 법 문 : 오후 11시 30분 ~ 12시(30분간)

주간기도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4시간)
야간기도	오후 11시 ~ 오전 3시 30분 (4시간 30분)

※매일 스님께서 참석하시어 축원불공 및 법문을 진행합니다.

* 일 정 안 내 *

구 분	일 시	장 소
입 제 식	6월 18일 오후 11시	4층 옥불보전
회 향 식	9월 28일 오전 10시	총본산 구인사